

얼음녹듯 냉전상흔 풀릴 날 꿈꾸며...



(10)

민주지산

물한계곡을 거슬러 백두대간을 오르는 길은, 산을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산 속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조금씩 경사를 높이는 데다, 왼쪽으로 백두대간의 가지줄기와 오른쪽으로 민주지산(1241.7m)이 우뚝 솟아 계곡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밟는 일은 잠시 밀쳐두고 물한계곡과 민주지산을 온전히 살피기로 했다. 백두대간의 등성으로 향하는 수많은 고삿길을 이런 식으로 다 더듬을 수는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한숨 돌리며 방향을 돌려보는 여유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계곡 초입에서부터 물한(勿寒)이라는 한자 이름이 여간 거북살스럽지 않았다. 그냥 이 고장 사람들처럼 사철 마르지 않을 만큼 물이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안될 건 없겠지만, '대동여지도'에도 물한(勿寒)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으니 그 속내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라면 '한가로움이 없다' 또는 '한가름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일 텐데, 이런 길고 한가로운 계곡에서 한가롭지 말라니, 그럼 한가로운 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물론 금백산 산촌의 삶을 꾸려나가려면 한가하게 계곡에 앉아 탁족(濯足)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운치없는 발상으로 생겨난 이름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즉시 이런저런 책을 뒤져도 수긍할 만한 해답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파

오른다. 역시 '백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었다. 『전등록(傳燈錄)』에 '한공부(閑功夫)'라는 말이 있었다. '하찮은 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선가(禪家)에서는 '계달음에 장애가 되는 쓸데없는 생각이나 분별'을 '한방상(閑妄想)'이라 부른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렇다면 물한(勿寒)이라는 말 또한 '(이 계곡에 들어와서는)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새겨도 되지 않을까. 저이기 위안이 된다. 한편으로 큰 귀동냥을 한 걸 가지고 건강부회를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그러고 보니 '민주지산(眠霧之山:다른 한자 표기도 있지만 이 표기가 가장 널리 쓰인다)'이라는 이름도 그 뜻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정라북도 무주군 설천면과 충청북도 영동군의 용화면과 상촌면에 걸쳐 도계를 이루는 산이건만 산 이름의 유래를 알게 하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동국여지승람'이나



○초점산과 대역산을 지나 민주지산 심도봉으로 오르는 길.



○백두대간 위에서 바라본 가야산. 화면 왼쪽 위에 솟은 봉우리가 가야산으로 초점산에서 뿔어나간 백두대간의 가지줄기이다.

빨치산 전투·특전사 凍死 등 비극 간직 민주지산 이름 '민주롭힌 산'서 따온 듯

'대동여지도'에는 백운산(白雲山)이라고 특별히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럼 민주지산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이는 아마 '산이름 해 또는 봉우리 해'지에 '두루 뭇' 자니까, 이 고장의 사투리로 '민주롭힌 산'을 일제강점기 때 지도를 만들면서 한자로 잘못 표기한 것이 오늘날의 이름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의 맞은편 능선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석기봉과 삼도봉이, 오른쪽으로 각호봉이 큰 높낮이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맛있게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민주롭힌 산이다. 그러나 실제로 등마루를 밟아보면 완연히 오르내리며 활처럼 길게 휘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인간의 눈은 석 밑을 만만 것이 못된다. 하지만 산의 양면세가 가차 병풍을 세워 놓은 듯이 굽고 선명한 선으로 계곡을 에워싸고 있음은 분명하다.

산을 오르는 길이 늘 그렇듯이, 인간사 또한 수많은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일의 반복인지도 모르겠다. 때론 잘못 들어선 길이 황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못 들어선 길은 그 길을 선택한 개인이나 집단을 해어날 수 없는 길쪽으로 빠뜨리곤 한다. 특히 그것이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요

된 것일 경우 비극의 도는 더 짙다. 한국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인 6·25는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에게 최악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비극의 극한이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불과 2년 전, 동계 훈련중이던 이 산에서 삼을 마감한 특전사 요원은 그 길고 모진 비극의 희생양이었다. 6·25가 아니었다면, 더욱이 그것이 분단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한겨울 눈 속에서 불귀의 객이 되어야 할 탈북민들의 이유도 없는 목숨이었다. 이에 앞서, 좌우 또는 남북이라는 선택의 외증에서 산으로 든 사람들, 흔히 빨치산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선택도 비극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직 물한리에는 그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상흔이 남아 있다. 물한리의 한 민가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돌로 쌓은 초소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 초소는 빨치산을 상대한 것이었기에 아직 버



티고 있는 것이겠지만, 마치 자신보다 힘이 센 동물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해 '보호색'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연약한 동물의 보호본능인 것 같아 쓴 웃음 섞인 서글픔을 더하게 한다. 살아남은 자들이 자조적으로 형성하는 '모진 삶'이란 게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법. 언 강물이 몸을 풀어 바다로 흘러들어 세상 모든 물과 하나를 이루듯 해원(解冤)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과연 그 날은 언제일까?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쉽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읊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생숨는 듯 합니다.
소담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공후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권디가 없고 알박하고 광명한 문장이 읽는 참에 취한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매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예기(余務)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다 말할 것도 없이 학심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성스님- (동-정)

혜충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혜충스님의 중노릇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탐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신한동 편자 / 혜충스님 감수
출판사 / 정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성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피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탐사! 이제 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찾아 떠나보려고 하자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복담의 오묘한 신비 이 태초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설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은행나무 전화 023143-0601
팩스 023143-0654

찾아오시는 길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진주 - 영주 - 마이산